

# 시나리오

제목	자율주행 법제화
내용	
<p>S#1. 박정우 변호사 사무실</p> <p>어두운 사무실에 두 남자가 마주 보고 앉아있다. 무거운 분위기 속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먼저 말을 건네며 적막을 깬다.</p> <p>정우: 이진운씨, 그날에 대해서 한 번만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.</p> <p>진운: 네. 아마 열 시 반쯤이었을 겁니다. 아침을 먹고 영화를 보려고 차를 타고 나왔죠. 평소처럼 자율주행모드를 키고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듣고 있었습니다. 한 10분쯤 지났었나...? 차가 급정거하더니 뭔가에 부딪히는 느낌이 났습니다. 나가보니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계셨습니다.</p> <p>정우: 신고는 하셨나요?</p> <p>진운: 자율주행모드라서 근처 병원으로 바로 연락이 갔습니다. 한 5분 정도 걸린다길래 근처를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없어서 도움을 받지는 못했고 제세동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차를 세워두고 비상등을 켜 상태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. 구급차가 오고 환자는 할아버지는 실려 갔지만... 너무 늦었던 것 같습니다.</p> <p>정우: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해 보니 선생님께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네요. 문제가 있다면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사례가 없었기에 기기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선생님께서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.</p> <p>진운: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? 저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. 아니, 잘못이 있다면 그날 자율주행을 했고, 그 차가 제 거라는 정도죠. 제가 운전을 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래밍하지도 않았는데 형사처벌이라니요. 저는 그 할아버지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.</p> <p>정우: 네,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. 영상도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든 걸로 확인하기도 어려워서 기기 결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. 차량 제조사 측과는 연락을 해보셨나요?</p> <p>진운: 아직이요.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깜깜무소식이네요.</p> <p>정우: 그럼 저희 쪽에서 먼저 만나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. 일단 집에서 마음 잘 추스르세요. 혹시 그쪽에서 연락이 먼저 오면 꼭 알려주시고요.</p> <p>진운: 네, 알겠습니다.</p> <p>S#2. 로지모터스 법무팀 회의실</p> <p>회의실 내에는 정우 혼자 앉아있다. 창가를 보며 무료한 듯 서류를 뒤적거리는 정우. 이윽고 회의실 문이 열리고 남녀 두 명이 들어온다.</p> <p>시은: 늦어서 죄송합니다. 법무팀 부서장 정시은입니다.</p> <p>주환: 자문 변호사 김주환입니다.</p> <p>정우: 이진운씨 담당 변호사 최정우입니다.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. 이진운 씨에게 먼저 연락할 줄 알았는데요.</p> <p>시은: 저희 쪽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뿐입니다. 안타까운 사고입니다만, 혹시 저희가 먼저 연락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?</p>	

정우: 물론이죠. 이진운씨는 자신이 직접 차를 몰던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났는데요. 보험처리 중 로지모터스 쪽으로 연락이 가지 않았나요?

시은: 연락은 왔습니다. 그런데 첫 사고기도 하고,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 저희 쪽 책임이 명시된 내용은 없지 않았나요?

주환: 네 맞습니다. 아직 자율주행과 관련해 개발사 측에 책임을 묻는 법률은 제정된 적은 없습니다.

시은: 게다가 저희는 이미 자율주행 안정성에 대해 정부 승인도 받은 상태인데, 도의적 차원에서 조의를 표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저희가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.

정우: 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건 분명히 기기의 결함 아닌가요?

시은: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레벨4의 안정성은 이미 국가적으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. 아시다시피 사람보다 반응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. 영상도 보니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에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, 이게 왜 제조사 측 잘못이라고 확인하시는 거죠?

정우: 과실을 따질 때 운전자의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.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르면 자율주행 시 운전자의 책임이 완화됩니다. 그럼 완화된 만큼 제조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?

주환: 판사도 아니신데 법률의 해석을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셔도 됩니까? 억측이 심하시네요.

정우: 어떻게 인공지능에서 오류가 없었다고 그렇게 확신하시는 거죠?

시은: 지금 2043년입니다. 오류요? 상식적으로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. AI의 발전 속도는 저희의 예상을 한참 뛰어넘습니다. 조만간 완전자율주행인 레벨 5도 상용화 될 텐데 레벨 4에서 오류가 있겠습니까?

정우: 말이 안 통하네요. 정말. 법정에서 뵙는 수밖에 없겠습니다.

주환: 진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?

정우: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.

### S#3. 박정우 변호사 사무실

통화 중인 정우, 앞에는 진운 혼자 앉아있다. 사뭇 초조해 보이는 진운.

정우: 네, 네네.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.

진운: 어떻게 됐습니까?

정우: 언론의 관심도 있고, 피해자 측 역시 로지모터스 측의 과오가 크다고 생각하나 봅니다. 합동 재판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.

진운: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요. 법률도 제대로 없이 자율주행차량부터 판매하다니... 알았다면 자율주행차량을 구매하지는 않았을 겁니다.

정우: 제조사 측도 이 맹점을 노린 거겠죠. 최선을 다했으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. 너무 걱정은 마세요. 재판 일정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.

진운: 정말 감사합니다.

### S#4. 내레이션

마지막 주제입니다. 내일 로지모터스의 자율주행차량 관련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해자 측 모두 제조사인 로지모터스의 차체 결함을 원인으로 지목하

며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인데, 로지모터스 측 담당 변호사는 자율주행차량은 레벨 4 주행의 경우 이미 정부의 인증을 받은 상태임을 강조하며 결함이 아닌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헌 국회의원은 자율주행차량을 상용화하기 이전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음을 비판하며, 국회에 이진운법을 발의하였습니다. 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에 제재가 걸릴 수도 있기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. 이와 관련해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(F.O).